

보수 논객 유석춘 교수



“현재 우리나라 보수단체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치열하게 논리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진보세력과 경쟁해야 합니다.”

유석춘(사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28일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견뎌온 진보세력에 비해 보수세력은 그동안 항상 권력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자생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조직력이 약하고 논리적 근거도 떨어지는 ‘모래알’”이라고 진단했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장, 자유선진당 정책조정위원장 등을 지낸 유 교수는 보수진영의 간판 논객으로 꼽힌다.

그는 “국민의 이념 지향을 조사해 보면 보수와 진보가 거의 7대 3 정도”

자생력을 키워 진보와 경쟁해야

라며 “하지만 진보측이 항상 어젠다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는 진보세력이 소수지만 조직을 잘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응집력도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최근 이념이 아닌 실용을 앞세워야 한다는 일부 보수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이념은 국가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념 싸움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보수단체들이 유의해야 할 또 다른 부분에 대해 유 교수는 “너무 중앙지향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선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과서포럼과 같이 하나의 문제에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상대 진영의 논리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그렇다고 진보·좌파단체들이 ‘척결 대상’은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그보다는 보수와 진보간의 건전한 경쟁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친북 좌파가 우리 사회에 불필요하지만 유럽식 좌파들은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모규엽 기자